

### 전주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 '나라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묵념·진혼곡 등 순 진행

전주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유가족 및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군경묘지에서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의 조총 발사, 진혼곡,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그분들의 빛나는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유가족 및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 전주군경묘지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

### 전주시보건소 폭염대비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전주시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홀로거주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 여름은 지난 5월부터 남부지역 일부에 이른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20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5,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경로당 등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함으로써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보건소는 또 폭염대비 건강수칙 홍보용 부채와 스킨팩을 제작·배포하고, 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에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편의점서 떨어진

#### 돈 휴친 60대 검거

편의점에서 떨어진 돈을 휴친 60대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 20분경 전주 완산구 모 편의점에서 B모(53)씨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현금 32만원을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 6·13 지방선거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게재

## 평화당 전주시장 후보 친형, 항소심서도 실형

#### 재판부, 징역 8개월 원심 유지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를 게재한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대학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돕기 위해 A모(37)씨 등 공범 6명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자보에는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 김 시장이 전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자보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악의적이다"며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

고하고 징역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은 250만원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석훈 기자

## 주민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대기환경 개선

#### 전주시·전북도 국비 46억 확보

#### 정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수행

전주시가 이용자 주민들이 SW(소프트웨어)개발에 참여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SW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전북도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과제를 신청한 결과 사업 대상에 선정돼 총 4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자 중심의 SW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주민들이 SW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함께 수행한다.

진흥원은 먼저 'S O 랩(Solution in Society Lab)'을 구축해 기존 공공자 중심의 서비스개발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문제발굴부터 솔루션 구현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SW서비스 개발 절차를 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을 통한 관리하는 지역 내 커뮤니티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온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S O 랩 참여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민간커버넌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사업 첫해인 올해는 버스 활성화를 주제로 S O 랩을 운영하고, 향후 자전거와 친환경차, 도보, 택시 순으로 SW서비스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SW개발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방향"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집행율 제고 협업회의

전주시가 현재 도시 곳곳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현대대상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현장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장과 사업부서 과장·팀장 등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과 현장 협업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의 동향을 전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위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총사업비 190억원) △서화동예술마을 도시재생사업(총사업비 172억원)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사업(총사업비 75억원) △전주주세권 도시재생사업(총사업



전주시는 지난 4일 현대대상 5층 회의실에서 '속도감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과 현장 협업회의'를 열었다.

비 300억원) 등 4개 도시재생사업지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개 현장지원센터에는 총 27명의 인력들이 근무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주민역량강화사업 △공통특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주차장, 공원, 생활가로, 집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위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4곳 확충

#### 전주시, 동산동 재능나라이린이집 등 올 연말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시는 최근 개원한 호성동 아이월드국공립어린이집에 이어 올 연말까지 총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동산동 재능나라이린이집, 송천동 센트럴키즈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2개소를 장기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금융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선정으로 7억 여 원을 지원받아 평화동 키즈캠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새롭게 단장키로 했다.

특히, 관련법 시행으로 오는 9월 25일 이후 준공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대해, 시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전라감영로 특성화' 착수

#### 46억원 투입 완산교까지 500m 구간 보행로 설치

내년에 완공되는 전라감영 주변권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걷기 좋은 길로 바뀐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라감영부터 완산교 교차로까지 500m구간을 걷기 편하고,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로 만드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 공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사업구간인 전라감영에서 완산교 구간은 그간 3차선 도로에 갓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다녀야했지만 이번 사업으로 도로 양측에 인도가 설치되고 차도와 인도사이에는 식물로 가득 찬 띠늬지가 만들어져 보행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선이 지중화됨으로써 보행자의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고 인도는 한옥마을과 같이 화강석으로 포장되 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사와 관련, 시는 기존 왕복 3차선 도로가 일부 2차선 도로로 줄어 교통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비해 차량흐름에 대한 교통조사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예측해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은 원도심의 도시재생 거점간 보행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 9일까지 개최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 박람회' 참가

#### 방문객 대상 여행상담 진행·한복입기 체험 등 전개

전주시가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서 전주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시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박람회 방문객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 주요 여행 명소를 소개하고 전주시 문화관광 현실사와 함께 하는 전주여행 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의 한국국제관광전과 서울국제트래블마트가 하나로 통합돼 올해 처음으로 확대 개최되는 행사로, 다양한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국내의 관광 홍보관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레저, 박물관 등 테마별 기획관이 운영된다. 또,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트래블마트 행사도 진행되는

이에 따라 시는 관광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특화 관광 상품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4개 시군을 연계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관광 상품을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홍보하여 전주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주여행 가이드북과 여행지도 등 다양한 전주 관광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한복 입기 체험 등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스 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서 4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주요 관광목적지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전주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남원서 흥기에 찢려 숨진 50대 남성 발견

#### 혈흔 묻은 과도 발견 경찰, 수사 착수 나서

전북 남원의 한 원룸에서 흥기에 찢려 숨진 50대가 수일 만에 발견됐다.

지난 5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경 남원 시내 한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기에 찢려 숨진 A모(51)씨를 발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 23일 새벽 원룸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된 동거녀 B모(63)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발견 당시 원룸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의 우측 가슴에 한차례 흥기에 찢려 상처와 혈흔이 묻은 과도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인근 여인숙에서 기거하던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A씨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흔이 묻은 과도에서 B씨의 DNA를 발견했지만, B씨가 A씨와 동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여타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경찰은 숨진 A씨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위치나 깊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일 수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